

기아타이거즈 경기일정

경기일자	상대팀	장소
03.24(토)	kt	광주
03.25(일)	kt	광주
03.27(화)	삼성	광주
03.28(수)	삼성	광주
03.29(목)	삼성	광주
03.30(금)	LG	잠실
03.31(토)	LG	잠실
04.01(일)	LG	잠실
04.03(화)	SK	문학
04.04(수)	SK	문학
04.05(목)	SK	문학
04.06(금)	넥센	광주
04.07(토)	넥센	광주
04.08(일)	넥센	광주
04.10(화)	한화	대전
04.11(수)	한화	대전
04.12(목)	한화	대전
04.13(금)	롯데	광주
04.14(토)	롯데	광주
04.15(일)	롯데	광주
04.17(화)	LG	광주
04.18(수)	LG	광주
04.19(목)	LG	광주
04.20(금)	두산	잠실
04.21(토)	두산	잠실
04.22(일)	두산	잠실
04.24(화)	한화	광주
04.25(수)	한화	광주
04.26(목)	한화	광주
04.27(금)	kt	수원
04.28(토)	kt	수원
04.29(일)	kt	수원
05.01(화)	롯데	사직
05.02(수)	롯데	사직
05.03(목)	롯데	사직
05.04(금)	NC	광주
05.05(토)	NC	광주
05.06(일)	NC	광주
05.08(화)	두산	광주
05.09(수)	두산	광주
05.10(목)	두산	광주
05.11(금)	삼성	대구
05.12(토)	삼성	대구
05.13(일)	삼성	대구
05.15(화)	넥센	고척
05.16(수)	넥센	고척
05.17(목)	넥센	고척
05.18(금)	SK	광주
05.19(토)	SK	광주
05.20(일)	SK	광주
05.22(화)	kt	광주
05.23(수)	kt	광주
05.24(목)	kt	광주
05.25(금)	NC	마산
05.26(토)	NC	마산
05.27(일)	NC	마산
05.29(화)	넥센	광주
05.30(수)	넥센	광주
05.31(목)	넥센	광주
06.01(금)	두산	광주
06.02(토)	두산	광주
06.03(일)	두산	광주
06.05(화)	kt	수원
06.06(수)	kt	수원
06.07(목)	kt	수원
06.08(금)	롯데	사직
06.09(토)	롯데	사직
06.10(일)	롯데	사직
06.12(화)	SK	광주
06.13(수)	SK	광주
06.14(목)	SK	광주
06.15(금)	LG	잠실

준비는 끝났다...가자 ! V12

기아타이거즈 경기일정

경기일자	상대팀	장소
06.16(토)	LG	잠실
06.17(일)	LG	잠실
06.19(화)	NC	광주
06.20(수)	NC	광주
06.21(목)	NC	광주
06.22(금)	넥센	고척
06.23(토)	넥센	고척
06.24(일)	넥센	고척
06.26(화)	SK	문학
06.27(수)	SK	문학
06.28(목)	SK	문학
06.29(금)	두산	잠실
06.30(토)	두산	잠실
07.01(일)	두산	잠실
07.03(화)	한화	광주
07.04(수)	한화	광주
07.05(목)	한화	광주
07.06(금)	LG	광주
07.07(토)	LG	광주
07.08(일)	LG	광주
07.10(화)	NC	마산
07.11(수)	NC	마산
07.12(목)	NC	마산
07.17(화)	삼성	광주
07.18(수)	삼성	광주
07.19(목)	삼성	광주
07.20(금)	kt	광주
07.21(토)	kt	광주
07.22(일)	kt	광주
07.24(화)	한화	대전
07.25(수)	한화	대전
07.26(목)	한화	대전
07.27(금)	삼성	대구
07.28(토)	삼성	대구
07.29(일)	삼성	대구
07.31(화)	롯데	광주
08.01(수)	롯데	광주
08.02(목)	롯데	광주
08.04(토)	두산	광주
08.05(일)	두산	광주
08.07(화)	넥센	고척
08.08(수)	넥센	고척
08.09(목)	롯데	광주
08.10(금)	롯데	광주
08.11(토)	SK	문학
08.12(일)	SK	문학
08.14(화)	LG	광주
08.15(수)	LG	광주
09.04(화)	두산	잠실
09.05(수)	두산	잠실
09.06(목)	넥센	광주
09.07(금)	넥센	광주
09.08(토)	삼성	광주
09.09(일)	삼성	광주
09.11(화)	NC	마산
09.12(수)	NC	마산
09.13(목)	롯데	사직
09.14(금)	롯데	사직
09.15(토)	SK	광주
09.16(일)	SK	광주
09.18(화)	삼성	대구
09.19(수)	삼성	대구
09.20(목)	NC	광주
09.21(금)	NC	광주
09.22(토)	한화	대전
09.23(일)	한화	대전
09.25(화)	kt	수원
09.26(수)	kt	수원
09.27(목)	LG	잠실
09.28(금)	LG	잠실
09.29(토)	한화	광주
09.30(일)	한화	광주



프로야구 서른일곱 번째 시즌, 기록은 계속된다.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정규시즌이 24일 시작된다.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휴식기 영향으로 예년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져 그라운드에 봄이 열린다.

프로야구
내일 개막

올해도 풍성한 기록 예고... '귀향' 정성훈 출장 첫 날이 최다 경기 출전 신기록

양현종 vs 김광현 20번째 110승 고지 싸움... 최형우 두번째 6년 연속 20홈런 관심

풍성한 기록들이 쏟아졌던 2017시즌이었다. KIA 양현종이 KBO MVP, 한국시리즈 MVP, 골든글러브 트로피를 싹쓸이하면서 역대 최초 3관왕에 올랐고, '국민 타자' 이승엽이 통산 최다 득점, 루타, 2루타 등 신기록 행진을 하며 현역 마지막 시즌을 화려하게 보냈다.

2018시즌에도 기록 행진은 계속된다. '통합 2연패'에 도전하는 KIA도 새로운 기록들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시즌 87승을 수확하며 정규시즌을 1위로 마무리했던 KIA는 통산 2400승을 겨냥한다. 올 시즌에 2400승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6승 더 많은 93승을 만들어야 한다. 93승은 두산이 지난 2016년에 작성한 시즌 최다승 기록과 타이다.

KIA 투수들은 첫 2만8000타삼진팀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남은 개수는 979개. 지난해 KIA 투수들은 985개의 타삼진을 만들었다. 첫 4400루도 KIA의 몫이 될 전망이다. KIA는 앞으로 69차례 베이스를 홈치면 4400도루를 채운다.

KIA의 화려한 방망이는 팀 2만1000득점(-356), 4000홈런(-121), 2만타점(-671)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두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베테랑들의 역사도 이어진다. 타석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정성훈에 눈길이 쏠린다. 정성훈이 KIA 유니폼을 입고 처음 그라운드에 오르는 날은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이 경신되는 기록의 날이다. 정성훈은 지난

KIA, 도전은 계속된다	
2400승	-93
2만8000 타삼진	-979
첫 4400 도루	-69
4000 홈런	-121
2만1000 득점	-356
2만타점	-671

해 통산 2135경기에 나와 양준혁의 통산 최다 경기 출장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정성훈은 역대 3번째 2200안타(-95), 400 2루타(-15) 기록에도 도전한다.

10년 연속 100안타를 준비하는 LG 박용택은 사상 첫 7년 연속

150안타와 2318개라는 양준혁의 통산 최다 안타(-93) 기록까지 넘보고 있다.

한방 싸움도 불이 붙었다. 지난해 홈런왕 SK 최정과 돌아온 홈런왕 넥센 박병호가 '홈런왕' 타이틀과 함께 첫 3년 연속 40홈런 자리를 놓고 다툰다.

KIA의 '판형' 임창용의 24번째 시즌도 막이 오른다. 임창용이 앞으로 10개의 타삼진을 더하면 역대 6번째 1400타삼진 주인공이 된다. 지난해까지 125승을 올리며 130승도 눈앞에 두고 있다.

양현종도 타이거즈 역사로 가는 걸음을 이어간다. 먼저 양현종은 부상에서 돌아온 좌완 라이벌 SK 김광현과 20번째 110승 주인공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된다. 김광현은 통산 108승, 양현종은 통산 107승을 기록하고 있다. 또 양현종은 55.1이닝을 더 소화하면 1500이닝을 채우게 된다. 지난해 158개의 타삼진을 뽑아낸 양현종이 91개의 타삼진을 보태면 역대 11번째 1300타삼진 주인공도 된다.

두산 장원준이 10승과 100타삼진을 동시에 이루면 꾸준함의 대명사가 된다. 이강철이 1998년에 기록한 연속 시즌 100타삼진 기록은 20년 만에 깨지게 된다. 역대 최다인 10년 연속 시즌 10승 기록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타석에서는 KIA 최형우의 꾸준함에 눈길이 간다. 11년 연속 10홈런을 노리는 최형우가 20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보내면 역대 두 번째 6년 연속 20홈런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다. 11년 연속 100안타도 최형우가 내다보는 기록이다. 여기에 15개의 안타를 더하면 1500안타 시상식을 하게 된다. 역대 7번째 1100타점(-69)을 놓고는 LG 박용택(-41), KIA 이범호(-47)와 경쟁을 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